이어령 박사를 추억한다

김형태 박사(한남대학교 14-15대 총장)

2022. 2월에 우리 시대의 석학 이어령 박사가 타계했다. 정말 많이 알고 맛깔나게 말하는 보기 드문 인재였다. 그분이 초대 문화부장관으로 재직할 때 대전 MBC가 정초에 ‘신춘대담’이라는 100분짜리 토크쇼를 진행했는데 그때 나는 대담의 MC를 맡아서 한 시간 동안 문화부 장관 실에서 녹화를 했다.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명석하게 답변을 했는데 지식과 지혜 그리고 감동을 주면서 시청자를 흡입해 나갔다. 정말 부러운 일이었다. 이제 그분은 하늘나라로 이사했지만 그분이 남긴 글을 소개함으로 함께 추억하고 싶다. (1) 아름다움의 힘 : 이라크 북쪽 사니다르(Shanidar) 동굴에서 수만 년 전에 살았던 네안데르탈인의 무덤이 발굴되었다. 그 옛날 원숭이와 다름없었던 그들이 죽은 자를 위해 무덤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그 무덤 속에서 꽃가루가 나왔다는 것이다. 그것도 그 주변에서는 피지 않는 꽃들. 아주 먼 곳에 가야만 따올 수 있는 그런 꽃이었다고 한다. 도대체 어떤 짐승이, 어느 원숭이가 죽은 자의 무덤을 만들었고, 그 위에 아름다운 꽃을 뿌릴 줄 알았을까? 이것이 바로 원숭이와 인간의 차이인 것이다. 꽃을 아는 원숭이가 슬픔과 기쁨을. 꽃으로 노래할 줄 아는 원숭이가 인간이 된 것이다. 황홀한 눈으로 꽃을 바라보았을 때 그 향기로 숨을 쉬었을 때 비로소 그 짐승의 가슴에는 인간의 피가 흘렀던 것이다. 꽃의 아름다움이 발톱이나 이빨보다 더 강한 힘이 된 것이다. (2) 비행기 : 사이먼 뉴컴(Simon Newcomb) 교수는 인간은 절대로 공기보다 무거운 엔진을 달고 하늘을 날 수 없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했다. 1901년의 일이다. 그러나 1903년 12월 17일 그 글의 인쇄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자전거포를 경영하던 라이트 형제(Wright Brothers)가 하늘을 날았다. 키티호크(Kitty Hawk)의 풀밭에서 열기구나 글라이더처럼 바람에 의해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1마력의 무거운 엔진을 달고 12초 동안 36m를 날았다(비행했다). 활공이 아니라 실제로 비행(飛行)을 한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날개를 달아주진 않으셨지만 하늘을 날 수 있는 꿈을 주셨다. 오늘날 우리들이 누리는 현실이 옛날에는 모두 다 꿈이었다. 닐 암스트롱(Neil Armstrong)이 최초로 달에 갔을 때 그의 손에는 작은 천 조각이 쥐어져 있었다. 그것은 키티호크 상공을 날았던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달 위에 새겨진 인류의 첫 발자국 뒤에는 하늘을 향한 라이트 형제의 꿈이 있었다. 결국 라이트 형제의 꿈이 사이먼 뉴컴 교수의 이론을 이겨낸 것이다. 꿈(Vision)을 꾸는 사람.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의 몸무게는 공기보다 더 가볍기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이다. (3) 뒝벌 : 뒝벌을 본 적이 있는가. 영어로는 범블비(Bumble bee)라 한다. 큰 엉덩이에 작은 날개라 아무리 보아도 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항공물리학자들을 비웃듯 잘만 날아다닌다.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기에 이런 농담이 있다. “뒝벌을 보고 ”넌 날 수 없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뒝벌은 멋모르고 날아다니는 것이라고” 비행기는 ‘베르누이의 원리’(Bernoulli’s principle)로 설명되는 양력(揚力)에 의해 비행을 하는 것이다. 날개 아래로 흐르는 공기보다 날개 위로 흐르는 공기가 빠르기 때문에 압력이 높은 아래쪽에서 압력이 낮은 위쪽으로 날개가 떠오르는 것이다. 물리학에서는 관성력과 점성력의 비율을 나타내는 ‘레이놀드 수’(Reynold’s number)라는 것이 있다. 이 수를 계산해 보니 뒝벌은 양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기 속의 점성력(粘性力)을 이용해 날아다니는 것이었다. 이 원리를 이용해 항공기술에 일대 혁명이 일어났다. 최근에 로봇 무기의 개발까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닭의 날개는 청둥오리보다 큰데도 날지 못한다. 뒝벌이 날아다니며 꽃 속의 꿀을 따고 있을 때 닭들은 걸어 다니며 땅속의 개미만 찾아다닌다. 역시 꿈(vision)의 차이인 것이다.